

“스티로폼이 썩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경기도 과천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들은 6월 5일 제11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과천의 자연을 깨끗이 하는 시설들을 견학해 보았습니다. 과천시 상수도 사업소, 자원정화센터, 환경사업소를 견학하면서 우리주변의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과천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들이 견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신기했던 건 아주아주 더러웠던
 똥물이 아주 맑게 변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주 더러워서 속은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 아주 맑은 물로 변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스티로폼으로 액자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퀴즈 **“스티로폼이 썩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바로 **500년**이래요~. 스티로폼은 잘 썩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내네요.
 또 김치국 한 잔을 부은 물에 물고기가 다시 살려면 몇 잔의
 종이컵으로 물을 부어야 할까요? 바로 11,360잔이래요.
 진짜로 함부로 버리면 안되겠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합니다.

- 과천초등학교 이지현

제 11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과천 상수도사업소, 자원정화센터, 환경사업소**를 견학하였습니다.
 또 거운 똥이벽에서도 우리는 꼭 참으며 환경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환경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 **과천이 자랑스럽습니다.**
과천, 과천 파이팅!

- 과천초등학교 최지현